

빛·바람·별... 화폭에 담은 다양한 결

박라희 개인전 '색감의 결'



박라희 작가

“어렸을 때부터 동네 미술학원에 가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정말 손에서 그림을 놓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러다보니 그림 그리는 것이 곧 직업이 됐죠.”

서양화가 박라희 작가의 네 번째 개인전 '색감의 결'이 오는 3월 5일까지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위치한 아티무 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장으로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바로 최근 그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 '우주'를 배경으로 한 '별 밤' 시리즈. 컴퓨터 빛의 우주를 배경으로 우주복을 입고 각기 다른 자세로 떠다니는 양과 호랑이, 토끼가 인상적이다. 박 작가는 “전시회에 오신 분들이 혹시 십이지를 바탕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저 밤하늘의 별을 그리다 ‘아, 내가 좋아하는 동물들을 그려 넣어보는 것



'색감의 결' 전시 모습.

은 어떨까' 해서 완성한 작품'이라며 “오히려 많은 분이 그렇게 얘기해주셔서 이 시리즈에 십이지를 적용해 작품의 의미를 확장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고 웃었다.

봄으로 일일이 별 하나하나를 찍어 다르게 표현한 '별 숲' 시리즈도 인상적이다. 작은 별들이 모여 완성된 그림은 마치 작가가 만들어낸 어떤 세계를 구성하는 은하처럼 보이기도 한다.

별을 하나씩 찍어나가는 과정에서 작품을 보는 모든 이들의 소망을 하나씩 찍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박 작가는 “색과 크기, 밝기가 모두 다른 모습의 별들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시 주제인 '색감의 결'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갤러리 좌측 공간에는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결을 표현하기 위한 설치 미술 공간도 마련됐다. 이 공간의 매력은 전시관의 불을 모두 꺼야만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사실 결은 제 작품에서도, 일상에서도 흔히

'우주' 배경 '별밤' 시리즈 주목 천·바람·나무 코르크 조각 활용 일상의 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3월 5일까지 광주 아티무 갤러리

볼 수 있어요. 작품 초기에는 금이 들어간 물감을 사용해 선을 긋는 등 빛을 통해 결을 강조하기도 했죠. 이번 전시에서는 히터에서 나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하얀 천을 통해 바람의 결을, 바닥에 설치한 나무 코르크 조각을 통해 나무의 결을 표현했어요.”

미묘한 흔들림으로 바람의 결을 표현하기도, 천장에서부터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물의 결 같기도 한 천 사이사이에는 별이 떠다니는 듯한 조명과 함께 다양한 색상의 빛이 섞이며 또 다른 분위기와 색을 만들어내는 색감까지도 느낄

수 있다. 휴양지를 그려낸 작품인 '안온한 그곳' 또한 조명을 켜 이후 살펴보면 각도에 따라 마치 해가 뜨고 집에 따라 달바라히 작 '안온한 그곳' 리지는 자연의 색깔처럼 또 다른 색감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시에서는 최근작과 더불어 지난 2018년부터 그린 작품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하늘에 떠 있는 섬 등이 인상적인 그녀의 초기작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소재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아기가 자라게 모여 있는 다양한 색깔의 집 때문인지 편안한 곳처럼 느껴진다.

상상 속에서도 있을 것 같은 곳에 집을 그려 넣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박 작가는 “오랜 시간 여행을 다니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 안락하고 편하다. 문득 그때 '이렇게 편한 집이 그대로 여행지에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집을 그려넣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관광 디카시 '웃음꽃 전남'



무등산 입석대

권자현

수수만만 년 세월 굽이굽이 돌고 돌아 눈 부신 햇살 비추이는 능선 사이사이 떠오르는 태양과 정겨이 입맞춤하며 빛고을, 희비에락을 굳건히 내려보는 사랑과 긍휼의 지킴이 든든히 우뚝 솟아 있구나!!!

광주미협 신임 회장에 박광구 작가



조각가 박광구 작가(60·사진)가 제12대 광주미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광주미협회는 지난 22일 무등산관광호텔에서 열린 광주미협회 회장 선거에서 박 작가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선거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 1,219명 중 73.9%인 902명이 참여했으며 박 작가가 508표를 획득, 241표를 얻은 문재평 작가(60·서예)와 152표를 얻은 김영화 작가(64·서양화)를 제쳤다.

조선대 미술교육학과와 동대학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한 박 작가는 현재 한국미술협회 조각분과 이사과 광주파인아트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박 작가는 오는 3월 1일부터 4년 동안 제12대 광주미협을 이끌게 된다.

박 당선인은 “슬로건으로 내 건 ‘모든 것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기반으로 협회의 위상 복원과 미래를 위한 변화를 꾀 하겠다”며 “영부토건에서 확보한 1억 원의 기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 메세나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작가들의 창작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광주미협회를 개최해 매년 우수작가 25명을 선정, 1인당 100만 원 등 4년간 총 1억 원을 창작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공공미술프로젝트 확대, 기존 비엔날레 전시장 활용, 온라인 작품 판매 시스템 구축 등을 내세우며 부족한 지역 전시 공간 확장과 시장 확대를 통한 작가들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력 강화를 통해 협회의 위상을 복원하고, 회원들과의 소통과 다각도의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한국민화뮤지엄, 민화액자 선물세트 출시

한국민화뮤지엄이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 설날을 맞아 민화액자 3종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해당 상품은 한국민화뮤지엄 공식 아트숍인 '올아트' 제품으로 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수복강녕' 세트와 경사로운 일만 기대하는 '벽사진경' 세트까지 두 가지로 준비됐다.

한국민화뮤지엄에서 선보이는 설날 민화액자 3종 선물세트 중 '수복강녕' 세트는 왕의 존엄

과 복을 상징하는 일월오봉도, 장수와 안녕을 기원하는 수거모질도, 부귀영화를 염원하는 호도(부영이)로 구성된다. '벽사진경' 세트는 임인년의 상징인 호도(호랑이)와 자손번창의 소망을 담은 연화도, 그리고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도로 구성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민화뮤지엄 홈페이지(minhwamuseum.com)로 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전남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추가 지원

전남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생태계 극복을 위해 예술인 창작지원과 시군별 특화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에 나선다.

23일 전남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정기공모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재단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이하 기금)을 통한 추가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재단은 앞으로 5년간 ▲지역예술인 창작육성 준비금 ▲시·군별 특화 문화콘텐츠 ▲문화기반시설 활용 프

그램 ▲농산어촌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실 ▲소외 예술인 창작·네트워크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총 100억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출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기금사업을 통해 전남 시군별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조직화하고, 거점별 특화사업 전개를 통해 관광과 마을기업, 일자리 등 문화경제가 선순환되는 전남형 문예사업 모델·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창조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다스코(주)는 흥익인간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며 보람을 공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매출 5,000억원 목표



SOC사업

가드레일 / 교량난간 / 터널 방음벽 / 방음벽



신재생 e.사업

육상태양광 / 수상태양광



건축자재사업

합판탈형 데크플레이트 / 스틸 데크플레이트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WBM사업

구조용 선조립 / 용접철근(WBM)
BIM모델링

신기술 개발 선도업체 다스코가 4차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

본 사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로길 26-2 TEL. 061)370-2144

서울지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9길 26 H비즈니스파크 C동 801호 TEL. 02)3440-7800

당진1공장 (데크플레이트)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361-15 TEL. 041)431-8200

당진2공장 (단 열 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합덕산단1로 50 TEL. 041)431-8259

영 남 지 사 부산시 동구 조양로 29 KCA빌딩 405호 TEL. 051)518-3702

새만금공장 (WBM)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 블럭 2로트

다스코 가족회사 | 다스코 | 쏘에코(수상태양광) | 세라코(점토벽돌, 외장재, 수처리) | 가스코(가드레일, 교량난간) | 스틸코(철근용통·가공) | 학교법인흥인학원(영산중·고등학교) | 흥인(부동산 임대업)